

골격근 전위술의 흉부외과적 적용

경희의료원 흉부외과

이 문 환 · 김 수 철 · 박 주 철 · 조 규 석 · 유 세 영

흉벽을 구성하는 골격근의 기능적 해부학적과 그에 대한 혈관 및 신경주행이 확립되면서 흉부외과 영역에서 골격근 전위술을 흉벽의 안정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더 다양하고 과감하게 적용하게 되었다. 골격근은 사강을 채우기에 충분한 용적을 가지고 있고 감염에 대한 저항성 때문에 지속적인 흉강내 감염으로 인한 사강의 보강은 물론이고 누공 또는 약한 조직의 봉합 및 기관지 절주의 강화에 적용되고 있으며 흉벽결손 및 선천성 기형의 교정에도 사용되어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 교실에서는 86년 1월 부터 95년 8월까지 골격근 전위술을 이용한 치료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총 21례중 남자 17례 여자가 3례였고 연령별로 5세부터 71세까지 였고 평균연령은 46세였다.
2. 병인별로 보았을때 만성농흉 4례, 폐농양 2례 및 전폐절제술후 농흉 6례의 사강을 보강하였고 이중 6례는 기관지 늑막루, 1례는 식도늑막루를 합병하였고 기관지절주 보강 2례 및 기관지 식도루 2례와 심장수술 후 종격동염으로 인한 사강의 보강 2례와 폐암의 흉곽전이시 광범위 절제후 야기되는 흉벽결손 1례와 선천성 흉벽기형인 Poland증후군 2례였다.
3. 전위근육은 광배근이 14례로 가장 많았고 전거근 및 대흉근 6례 및 기타 4례였다.
4. 만성농흉 및 전폐절제술후 농흉 10례에서 근전위술과 흉곽성형술을 병행하여 9례에서 추적경과가 양호하였고 1례에서 수술후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5. 근전위술 이전의 평균수술 횟수는 2.0회였고 근전위술후 평균 입원일수는 24일이었으며 총 21례중 1례의 사망(폐렴1)이 있었다.